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 의사결정 참여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Participation on Family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 Couple Household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 · 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강 사 박 은 아

명예교수 이 정 우

Major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 Park, Eun-A

Emeritus Professor : Lee, Jeong-W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marital communication, decision making participation,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 couple househol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26 to July 21, 2003. Total 394(male: 186, female: 208) sampl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Using SPSS/PC WIN program,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findings showed that there were high level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elderly males and females. In the decision making participation, the finding showed that both elderly males and females generally made joint decisions with no gender differences. The elderly males and females reported overall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the elderly males were more likely satisfied with their family lives than the elderly females.
- 2) The path analysis on family life satisfaction presented that several variables had direct/indirect effects on family life satisfaction through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participation. Among the moderate variables, communication agreement and communication openn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family life satisfaction. Specifically, the elderly men were more likely satisfied when they participated in decision making on leisure; the elderly women were more likely satisfied when they participated in decision making on family life.

▲주요어(Key Words) : 부부단독가구 노인(elderly in couple households), 의사소통(communication), 의사결정 참여(decision making participation), 가정생활만족도(family life satisfaction)

I. 서 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노인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와 더불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노인 혼자, 또는 노부부만 생활하는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자녀 세대의 핵가족 선호와 노인부양의식 약화 등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 세대들이 자녀의 독립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노인 세대 스스로도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한다면 자녀 세대와 따로 살기를 선

* 주 저 자 : 박은아 (E-mail : shea1212@hanmail.net)

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전환기적 변화의 상황에서 노인 세대는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노후 가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노부부만 생활하는 단독가구의 경우 가정생활의 운영 주체가 부부가 되므로 노부부의 가정생활 관리능력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부부간 원활한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단독가구의 노부부들은 동거 가족 없이 부부만 생활하기 때문에 부부의 친밀감과 결속감이 더 증진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발달 단계에 따른 성역할 변화 및 역할 전환 등 노년기의 변동과 도전을 경험하면서 제한된 공간속에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노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의 갈등이 보다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만족감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노부부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부부의 적응도가 높아지며(Suitor, 1991), 부부관계의 질이 향상되고(Sprecher & Felmlee, 1997), 부부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김경신·이선미, 2001), 부부의 의사결정 공유 또한 노인의 부부관계 및 가정생활의 중요한 상호작용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단독가구 노부부는 가정을 관리하는 독자적인 주체가 되므로 노후 가정생활의 만족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의 의사결정 공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부부의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와서야 노부부의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김선우, 2002; 김영나, 2001; 박지은, 2001; 이정우·박은아, 2003; 이행옥, 2000), 그리고 노인의 의사결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모선희, 1991; 송주은·문숙재, 1993; 여윤경, 1993; 지금수·김현지, 1999)들이 이루어져 온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부와 단독가구 노부부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여자노인만을 대상으로 노부부의 의사소통이나 가정생활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단편적으로 연구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정학 분야에서 노인 단독가구를 독립적인 대상으로 하여 가정생활 관련 내용을 조사한 연구들(강미선, 1992; 박경란·임춘희, 1991; 이선형, 2001; 이선형·이연숙, 1997; 이영자, 1999; 조명희 등, 1997; 채옥희, 2000; 한경혜, 1996; 한은진·채옥희, 1995)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들 연구 역시 대부분 노인 독신가구와 노부부 단독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했으며, 부부 중 한 쪽의 배우자만을 조사하여 가정생활 관련내용을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정생활의 특성과 관련지는 심층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노년기 가정생활에서 부부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부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부부간 상호작용과정과 그 결과로 산출되는 가정생활만족도를 총체적으로 살펴본 연구

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점차 증대해 가는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부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참여가 가정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단독가구 노부부의 상호작용 능력을 고취시키고,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생활개선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부부의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Rice(1979)는 의사소통이란 사람들간의 감정, 태도, 사실, 신념 및 사상의 전달과정으로, 개인이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에서 느낌과 의미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Gross 등(1980)은 의사소통을 개인간에 정보가 교환되는 과정으로,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Deacon과 Firebaugh(1975)는 메시지가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으로 송신자에게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으로, Biennu(1970)는 생물체 사이의 느낌, 태도, 사실, 믿음, 사상 등을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개인간에 서로 다른 상황을 이해시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의사소통을 정의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부부간 의사소통을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노부부간에 서로의 생각, 감정, 느낌 등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 가정학 분야에서 노부부의 의사소통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다수가 노년기 부부관계, 부부갈등, 부부스트레스나 결혼만족도, 결혼의 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부부관계 변인의 하위변인으로 포함하여 배경변인으로만 다루어 왔다(김경신·이선미, 2000, 2001; 김혜경, 1996; 윤영, 1990; 이선미·김경신, 2002; 임선영·김태현, 2002; 전길양·임선영, 1998). 이에 비해 노부부의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몇 편(김선우, 2002; 김영나, 2001; 박지은, 2001; 이정우·박은아, 2003; 이행옥, 2000)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행옥(2000)은 노부부의 의사소통과 중재방안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노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중재방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지은(2001)의 연구에서는 노부부가 공유하는 시간은 많지만 의사소통 빈도와 일치도는 비교적 낮고, 쌍방적·개방적 의사소통이 적으며, 배우자와의 대화에 불만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노인이 더 쌍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전반적 의사소통 만족도도 높았고, 남자노인이 건강문제 등보다 '개인적 문제들'에 대해 더 관심을 보이는 반면 여자노인

은 자녀 및 집안문제 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나(2001)의 연구에서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은 비교적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문제, 자녀 및 손자녀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많이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일상생활이나 여가문제에 대해서는 대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대화시간은 절반 정도가 30분에서 2시간의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대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우(2002)에 의하면 노인의 부부 상호간 의사소통은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이 가장 많고, 요구-철회, 상호회피, 손상적 의사소통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자노인이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여자노인은 부정적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는 요구-철회, 손상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는 노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영역별로는 의사소통 정도, 개방도, 일치도 순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은 남녀간에 차이를 보여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의사소통효율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단독가구로 생활하는 노부부와 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부를 모두 포함하여 그들의 의사소통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에서 가족형태에 따라 자녀동거 노부부와 단독가구 노부부의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었으며(김선우, 2002; 이정우·박은아, 2003), 성별에 따라 노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도 차이가 있음(김선우, 2002; 김영나, 2002; 박지은, 2001; 이정우·박은아, 2003)을 볼 때, 가구형태를 구분하여, 그리고 남녀를 구분하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 가운데 부부만 생활하는 단독가구의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부부간 의사소통 및 그 차이를 보다 심도있게 조명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독가구 노부부의 부부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노부부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Gross 등(1980)은 의사결정이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규정하고 끄집어내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취할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며, 가치와 목적에 의해 동기가 발생되고 표준에 의해 검토되어 자원의 사용과 창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Maloch와 Deacon(1966)은 의사결정을 여러 대안들 중에서 선택 또는 해결하는 것으로 가정관리에 무수히 작용하는 기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Nickell과 Dorsey(1976)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여러 가지 대체수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을 의사결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념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이란 가정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최선의 행동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에 근거하여 '가정생활에서 결정해야 할 제반 사항들에 대해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 행동'으로 노부부간의 의사결정 참여를 정의하고자 한다.

노부부의 의사결정을 분석한 국외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모든 의사결정을 부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orfman & Heckert, 1988; Dorfman & Hill, 1986). 특히 최근 Kulik(2002)은 이스라엘의 은퇴 전·후 남녀노인 469명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권력관계를 '주요한 결정', '사소한 결정', '시간소비에 관한 결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부 권력관계는 일반적으로 '주요한 결정과 사소한 결정'에 있어서는 평등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소비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는 은퇴전 노인보다 은퇴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덜 평등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자녀에게 부양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 생활과 부양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는 전반적으로 높지만 의사결정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건강, 경제, 주택 등의 영역에서는 자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특히 노인이 자녀에게서 개인적 보살핌(personal care)을 많이 받을수록 자녀의 의사결정 영향력은 증가하고 노인의 의사결정 참여와 의사결정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ratt et al., 1989).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노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전통적인 직계가족 가치관이 우세한 한국 가족 문화의 특성상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특히 여자노인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을 조사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조사한 송주은과 문숙재(1993)의 연구에서는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자녀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데 비해, 노인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윤경(1993)도 자녀와 동거하는 여자노인의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결정참여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의사결정 유형은 자녀와의 공동결정형, 자녀결정형, 노인결정형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의 의사결정참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현 등(1999)의 연구에서는 의생활, 식생활과 같은 노인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노인이 결정한다는 비율이 높고, 자녀와 관련된 것들은 자녀들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남녀를 비교해 볼 때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이 가정 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혜정과 이동숙(2000)은 부부 단독가구 여성노인과 자녀 동거가구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정 내 의사결정권을 살펴보았는데, 자녀와의 동·별거에 상관없이 배우

자가 있는 여성노인 집단이 배우자 없이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 노인 집단보다 가정 내 의사결정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에 비해 노인의 의사결정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의사결정수준이 더 높다(지금수·김현지, 1999)는 견해와 남자노인의 의사결정권이 많다(김태현 등, 1999)는 견해가 있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곧 남녀노인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이 차이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노부부의 의사결정을 분석한 국외의 연구들은 대체로 노부부가 가정 내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노부부의 부부간 의사결정 참여를 조사한 국내연구는 전무해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단지 이와 관련한 연구(김재엽 등, 1998)에서 노부부가 권력을 공유하는 평등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우리나라 노부부의 권력구조는 여전히 불평등함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 노부부의 부부간 의사결정 참여를 분석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유교문화에 의한 가부장적 사고가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부부단독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부부간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파악하고, 그 차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연구는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3. 가정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가정생활만족도는 개인이 가정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만족도로(Kopelman et al., 1983),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Weigel et al., 1995)를 의미한다. 그리고 임정빈(1988)은 이 개념을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간의 일치에서 느끼는 충족감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또, 두경자(1990)는 이 개념이, 가정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의 주관적인 감정 및 태도로서 가정생활 전반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의 정의를 토대로 개인이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내리는 평가, 즉 노인 개인이 자신의 기대수준과 비교하여 현재의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만족감을 가정생활만족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가 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서구의 연구들(Aquilino, 1990, 1991; Aquilino & Supple, 1991; Suitor & Pillemer, 1987, 1988)에서는 대부분 자녀와의 동거는 노부모의 사기(士氣)를 저하시키고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경혜와 윤순덕(2001)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자녀와의 동거가 서구의 가치인 독립성이나 호혜성의 규범에 위배되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다른 사회문화와 가치관이 존재하므로 자녀와의 동·별거에 따른 노부모의 안녕감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와의 동거가 고독감,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생활만족도를 높여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들(권중돈·조주연, 2000; 김태현 등, 1998; 유성호, 1997; 이가옥·김정석, 1994)이 있는 반면,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행복감을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연구들(김종숙, 1987; 서미경·김정석, 1995; 원영희, 1995)도 있다. 또한 부부 단독가구 여성노인과 자녀 동거가구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조사한 정혜정과 이동숙(2000)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노인 집단이, 배우자 없이 자녀와 동거하거나 부부만 동거하는 단독가구 노인 집단보다 자존감과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ay와 Day(1993)의 연구에서 노후 생활만족도는 부부 단독가구 노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독신가구 노인, 그리고 자녀나 친척과 동거하는 노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의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본 결과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단독가구 노인과 자녀 동거가구 노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연구하거나, 거주유형에 따라 부부 단독가구와 자녀 동거가구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을 뿐, 단독가구 노부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노인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연구는 결혼 및 생활만족도, 또는 삶의 질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이고, 노년기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만족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만 생활하는 단독가구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정생활만족도를 파악해보고, 남녀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4. 관련변인 고찰

1)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연령

연령이 낮은 노인이 대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영나, 2001), 연령이 높은 남자노인이 부정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선우, 2002), 여자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쌍방적 대화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은, 2001). 반면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의사소통효율성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한편 Goldsman(1997)과 Ward(1993)의 연구에서 노년기에 부부의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을 조사한 연구들(김태현 등, 1999; 모선희, 1991; 송주은·문숙재, 1993; 여윤경, 1993; 오건작, 1992)에서는 연령이 낮은 노인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남녀노인들의 삶의 만족 수준(김태현 등, 1999; 박은숙 등, 1998; 원영희, 1995; 장현 · 이철우, 1996)이 높았고, 부부단독가구 여성노인의 경우에도 80세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았다(정혜정 · 이동숙, 2000).

(2) 학력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의 의사소통효율성과 대화정도가 높게 나타났고(김영나, 2001),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정우 · 박은아, 2003), 학력이 높은 노인이 부부간에 쌍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은, 2001).

한편 학력이 높은 노인이 가정 내 의사결정권이 높게 나타나 노인의 학력에 따라 의사결정권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 연구(김태현 등, 1999; 모선희, 1991; 송주은 · 문숙재, 1993; 여윤경, 1993)가 있는 반면 가정 내 의사결정은 노인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지금수 · 김현지, 1999)도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학력이 높은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고(김경애, 1998; 김기태 · 박봉길, 2000; 박은숙 등, 1998; 윤종희 · 이혜경, 1997; Krouse & Borawski-Clark, 1995),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승덕, 1996; 김태현 등 1999; 최정신, 1999; Headey et al., 1992).

(3) 종교유무

종교가 있는 노부부가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고 대화정도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고(김영나, 2001), 종교가 있는 남자노인이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선우, 2002), 종교가 일치하는 노부부간에 쌍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박지은, 2001). 그러나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는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이 종교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노인의 가정 내 의사결정은 종교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주은 · 문숙재, 1993; 여윤경, 1993; 지금수 · 김현지, 1999). 그러나 노년기에 있어 종교는 생활의 의미 자각과 각종 상실감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중요한 심리 · 사회적 기능을 하므로(여윤경, 1993)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의사결정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진 노인들이 생활적응력이 높고, 소외감도 덜 느껴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승덕, 1996; 김미숙 · 박민정, 2000; 최정신, 1999; Idler & Kals, 1997; Krause, 1997; Levin et al., 1995). 그러나 일부 연구(김종숙, 1987; 박충선, 1990; 조옥희 등, 1991)에서는 종교나 종교의 종류와 생활만족도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4)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은 노부부의 경우 의사소통효율성 및 대화정도

도 높을 뿐 아니라 대화시간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고(김영나, 2001), 박지은(2001)의 연구에서도 건강이 좋은 노인이 부부간에 쌍방적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도 건강한 노인들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선우(2002)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의사소통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노인의 건강상태는 노인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과 높은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모선희, 1991; 송주은 · 문숙재, 1993), Pratt 등(1989)의 연구에서도 좋은 건강상태는 노인에게 중요한 자원이 됨을 제시하였다. 반면 가정 내 의사결정은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여윤경, 1993; 지금수 · 김현지, 1999)도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장현 · 이철우, 1996; 조옥희 등, 1991; 주성수 · 윤숙례, 1993; 지연경 · 조병은, 1991; Davis et al., 1992; Quinn, 1983)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월평균생활비

월평균생활비와 의사소통, 의사결정 참여 그리고 가정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월평균생활비와 정적 상관이 있는 월평균소득 또는 경제상태와의 관련성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경제상태가 여유로운 노인들이 높은 의사소통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정우 · 박은아, 2003), 경제적 수준이 높은 노인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경제상태에 여유가 없다고 지각하는 남자노인은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우, 2002).

한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소득이 있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이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정도가 높아 노인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주은 · 문숙재, 1993; 한임섭, 1987). 또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을수록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높게 나타났다(모선희, 1991; 여윤경, 1993; 한임섭, 1987).

경제상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김지훈, 1997; 윤종희 · 이혜경, 1997; 정인숙, 2000; Ardelit, 1997; Krause, 1991)에 상당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직업유무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김영나, 2001; 이정우 · 박은아, 2003)은 노인의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선우(2002)의 연구에서도 여자 노인의 경우 직업유무에 따른 의사소통은 서로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이 있는 남자노인이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은 노인의 현재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금수 · 김현지, 1999). 그러나 다른 연구(김태현 등, 1999; 송주은 · 문숙재, 1993; 여윤경, 1993)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권

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직업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지의 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권중돈·조주연, 2000; 김은경, 2002; 박충선, 1990; Mannell & Dupuis, 1996).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직업유무와 생활만족도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김경신·이선미, 2003)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7) 단독가구 형성 기간 및 단독가구 지속 의향

단독가구 형성 기간이나 단독가구 지속 의향과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의사결정 참여, 가정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독가구 노부부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노부부들이 단독가구를 형성해 온 기간, 그리고 앞으로도 부부만 생활하는 단독가구형태로 생활하기를 원하는지의 의향이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의사결정 참여 그리고 가정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심리적 변인

(1) 관계지향성

김선우(2002)의 연구에서는 성격특성 중 하나인 관계지향성과 노인의 의사소통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는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할수록 노인들은 부부간에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한편 관계지향성과 의사결정 참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관계지향적 성격 특성과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의사결정 참여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관계지향성과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나 대체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수용적, 적극적, 사회적, 외향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et al., 1992).

(2) 성역할태도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효율성이 서로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주부의 대화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하상희·이정우, 1996)를 고려하여 성역할태도와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의사소통 간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성역할태도와 노인의 의사결정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상당수 연구에서 부인 또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부가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강기연, 2000; 이형실·육선화, 1985; 하상희·이정우, 1996; Bagarozzi, 1990; Scanzoni, 1982; Ray, 1988), 성역할태도가 노부부의 의사결정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한 김태현 등(1998)의 연구에서는 양성성을 보인 노인들의 삶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으며(이정우·박은아, 2003),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우, 2002).

한편 Rice와 Tucker(1986)는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경우 의사결정에 적극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의 가정 내 의사결정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윤경, 1993; 지금수·김현지, 1999; Hill & Scanzoni, 1982).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김경신·이선미, 2003; 윤중희·이혜경, 1997; 이선미·김경신, 2002, 정인숙, 2000)도 높게 나타난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4) 내외통제성

노인의 내적통제성향이 높을수록 노부부간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이정우·박은아, 2003), 내외통제성과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은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내외통제성과 노부부의 의사결정 참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내적통제성향이 강한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지연경·조병은, 1991)가 높고, 생활적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ker, 1976; Kibett, 1976).

(5) 부부간 친밀감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간에 친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부의 의사소통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년기 부부일수록 관계에 생동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김경신·이선미, 2001)를 볼 때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노부부간 친밀감과 의사결정 참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노부부의 친밀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이선미와 김경신(2002), 김경신과 이선미(2003)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경우 친밀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만한 부부관계는 질적 측면에서의 노인의 삶의 만족을 더 많이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 등, 1998).

(6) 상대적 생활수준 지각감

주변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생활수준이 높다고 인지하는 노인들이 높은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우·박은아, 2003), 또한 생활수준과 관계가 있는 노인의 경제상태와 의사소통 간의 관련성(김선우, 2002; 박지은, 2001; 이정우·박은아, 2003)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의 상대적 생활수준 지각감은 의사소통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주관적으로 경제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하고(지금수·김현지, 1999), 또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여윤경, 1993) 노인이 가정 내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김은경, 2002; 조옥희 등, 1991; Spreitzer & Snyder, 1974) 및 삶의 질(정혜정·이동숙, 2000; 최정신, 199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길양·임선영, 1998).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부부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의 수준은 어떠하며, 남녀노인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부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배경변인, 부부간 의사소통,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 학력, 종교유무, 건강상태, 직업유무, 월평균생활비, 단독가구 형성 기간, 단독가구 지속 의향 등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심리적 변인으로 관계지향성과 관련하여서는 Robin 등(1994)의 연구를 기초로 한 양정운(1999)의 설문을 토대로 6문항($\alpha=.56$)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서는 Rosenberg(1965)의 연구를 기초로 한 이경희(1998)의 설문을 토대로 8문항($\alpha=.75$)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태도에 관한 척도는 Kulik(1999)의 연구를 기초로 한 강기연(2000)의 설문을 토대로 7문항($\alpha=.81$)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임을 의미한다. 내외통제성과 관련하여서는 Potter(1966)의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I-E) 척도를 참고로 한 김혜정·이기영(1997)의 설문을

토대로 9문항($\alpha=.69$)을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강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외적통제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부부간 친밀감과 관련하여서는 Broucke 등(1995)의 척도를 기초로 한 이경희(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10문항($\alpha=.81$)을 재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생활수준 지각감 척도는 Davis(1981), Dillard(1987)의 연구를 토대로 박미금(1993)이 작성한 2문항($\alpha=.89$)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 부부간 의사소통¹⁾

선행연구(김영나, 2001; 심혜선·이정우, 2001; Bienvenu, 1970; Powers와 Hutchinson, 1979)를 토대로 부부간 의사소통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정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 정도(7문항, $\alpha=.84$), 의사소통 일치도(8문항, $\alpha=.86$), 의사소통 개방도(10문항, $\alpha=.89$)의 3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총 25문항($\alpha=.94$)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 정도, 일치도,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의사결정 참여

Blood와 Wolfe(1960)의 부부권력 지표(Marital Power Inventory/ MPI)와 강기연(2000), 그리고 이정우와 박은아(2001)의 연구를 참고로 문항들을 구성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생활(4문항, $\alpha=.81$), 식·주생활(6문항, $\alpha=.73$), 재정생활(4문항, $\alpha=.68$), 가족생활(3문항, $\alpha=.61$), 여가생활(3문항, $\alpha=.54$)의 5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총 20문항($\alpha=.83$)의 5점 Likert 척도로, 각 의사결정 문항에 대해 '항상 남편이 결정한다'의 1점에서 '항상 부인이 결정한다'의 5점으로 구성된 뒤, 이를 다시 '항상 남편이 결정한다'와 '항상 부인이 결정한다'에 1점, '대체로 남편이 결정한다'와 '대체로 부인이 결정한다'에 2점,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에 3점을 주어 재점수화하여 1점에 가까울수록 부부의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낮은 것으로, 3점에 가까울수록 부부의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3) 가정생활만족도

선행연구(Hays & Stinnett, 1971; Schumm, 1986; 강기연, 2000; 최동숙, 1992)를 참고로 하여 자신의 지위 및 역할, 건강, 재정,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여가 및 사회활동, 전반적인 가

1) 단독가구 노부부간에 가정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평소 어느 정도 자주 이야기하고(정도), 어느 정도 생각이나 의견의 조화와 일치를 잘 이루며(일치도), 또 어느 정도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는가(개방도) 하는 의사소통 상호작용에 대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자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정생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21문항($\alpha=.89$)을 재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부부만 생활하는 만 60세 이상²⁾ 80세 미만의 단독가구의 남녀노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3년 2월 17일부터 3월 21일 사이에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같은 해 5월 26일부터 7월 21일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35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기재가 불충분한 41부를 제외한 총 394부(남자노인: 186부, 여자노인: 20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PC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계수(Cronbach's 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요인분석,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와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특성

(N=394)

변인	구분	전체(N=394)		남자(N=186)		여자(N=208)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	60세 이상~65세 미만	122	31.0	27	14.5	95	45.7
	65세 이상~70세 미만	150	38.1	76	40.9	74	35.6
	70세 이상~80세 미만	122	31.0	83	44.6	39	18.8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학력	초등졸 이하	60	15.2	15	8.1	45	21.6
	중졸	93	23.6	34	18.3	59	28.4
	고졸	137	34.8	55	29.6	82	39.4
	대졸 이상	104	26.4	82	44.1	22	10.6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종교유무	있다	267	67.8	119	64.0	148	71.2
	없다	127	32.2	67	36.0	60	28.8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다	66	16.8	28	15.1	38	18.3
	보통이다	91	23.1	32	17.2	59	28.4
	건강하다	237	60.2	126	67.7	111	53.4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월평균생활비	100만원 미만	69	17.5	30	16.1	39	18.8
	100만원~150만원 미만	131	33.2	60	32.3	71	34.1
	150만원~200만원 미만	59	15.0	29	15.6	30	14.4
	200만원 이상	135	34.3	67	36.0	68	32.7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직업유무	있다	167	42.4	95	51.1	72	34.6
	없다	227	57.6	91	48.9	136	65.4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단독가구형성기간	5년 미만	126	32.0	58	31.2	68	32.7
	5년~10년 미만	132	33.5	66	35.5	66	31.7
	10년~15년 미만	92	23.4	44	23.7	48	23.1
	15년 이상	44	11.2	18	9.7	26	12.5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단독가구지속의향	그렇다	310	78.7	151	81.2	159	76.4
	아니다	55	14.0	24	12.9	31	14.9
	고려중이다	29	7.4	11	5.9	18	8.7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2)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기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Erikson (1956)이나 Havighurst(1972)의 인생주기이론, Levinson(1978)의 인생계절론, 김종서 외 3인(1982)의 한국인의 발달과업 등에 따르면 노년기를 대체로 60세 이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보기로 한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변인 수준 (5점 만점)

변인	전체(N=394)		남자(N=186)		여자(N=208)		t값 및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관계지향성	3.26	.46	3.27	.45	3.25	.47	.47
자아존중감	3.50	.52	3.54	.53	3.47	.50	1.08
성역할태도	2.89	.70	2.99	.70	2.81	.70	2.64**
내외통제성	3.52	.48	3.55	.48	3.49	.47	1.41
부부간 친밀감	3.38	.53	3.48	.51	3.29	.54	4.11***
상대적 생활수준 지각감	3.10	.93	3.14	.97	3.07	.89	.96

P<.01 *P<.001

한편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관계지향성 평균은 남녀 각각 3.27점과 3.25점,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54점과 3.47점, 성역할태도의 평균은 2.99점과 2.81점, 내외통제성의 평균은 3.55점과 3.49점, 부부간 친밀감의 평균은 3.48점과 3.29점, 상대적 생활수준 지각감의 평균은 3.14점과 3.07점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태도와 부부간 친밀감에서 남녀노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성역할태도의 경우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더 근대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권리와 이익을 갖는 전통적 역할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남성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는다(이신숙·이경주, 1999)는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부부간 친밀감은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이 부부간의 친밀감을 보다 높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부인보다 남편의 친밀감이 높게

나타난 이선미와 김경신(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2.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의 수준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의 평균은 5점 만점에 남자노인 3.46점, 여자노인 3.37점으로,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남녀노인 모두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대체로 원활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 대부분이 중간 수준 이상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영나(2001),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의사결정 참여의 평균은 남자노인은 2.35점, 여자노인은 2.34점으로, 단독가구의 남녀노인 모두 가정 내 의사결정에 대한 공동 참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선미와 김경신(2002)의 연구 결과의 비슷한 수준이다.

<표 3> 조사대상자의 부부간 의사소통 ·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의 수준

구분		전체(N=394)		남자(N=186)		여자(N=208)		t값 및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 ^{a)}	정도	3.49	.61	3.53	.62	3.46	.61	1.09
	일치도	3.33	.59	3.35	.61	3.30	.56	.84
	개방도	3.43	.61	3.49	.59	3.37	.63	1.98*
	전체	3.41	.53	3.46	.53	3.37	.54	1.56
의사결정 참여 ^{b)}	의생활	2.18	.55	2.13	.53	2.23	.57	-1.75
	식·주생활	2.15	.44	2.18	.41	2.12	.47	1.28
	재정생활	2.38	.46	2.41	.44	2.37	.49	.84
	가족생활	2.62	.41	2.65	.39	2.59	.43	1.33
	여가생활	2.63	.39	2.64	.39	2.62	.40	.46
	전체	2.35	.31	2.35	.28	2.34	.33	.54
가정생활만족도 ^{c)}		3.38	.44	3.44	.43	3.32	.44	2.80**

*P<.05 **P<.01

a)의사소통: 5점 만점 b)의사결정 참여: 3점 만점 c)가정생활만족도: 5점 만점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의 평균은 남녀 각각 3.44점과 3.32점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녀노인 모두 대체로 자신의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이 가정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들(김지훈, 1997; 김경신·이선미, 2003; 정인숙, 2000; Krause, 199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표 3>.

3.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배경변인·부부간 의사소통·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간의 인과관계

1) 부부단독가구 남자노인의 배경변인·부부간 의사소통·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간의 인과관계

부부단독가구 남자노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은 인과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배경변인이 부부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참여를 경유하여 종속변인인 가정생활만족도에 작용하는 인과효과는 <표 5>와 같다.

배경변인 중에서는 건강상태, 직업유무, 단독가구 지속 의향, 관계지향성,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내외통제성, 부부간 친밀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인 중 부부간 의사소통에서는 의사소통 일치도와 개방도가, 또 의사결정 참여에서는 여가생활 의사결정 참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부단독가구 남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변인들은 배경변인 중 부부간 친밀감($\beta=.33$), 건강상태($\beta=.21$), 내외통제성($\beta=.20$), 관계지향성($\beta=-.14$), 자아존중감($\beta=.12$), 직업유무($\beta=-.11$)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인 중 부부간 의사소통에서는 의사소통 개방도($\beta=.20$), 의사소통 일치도($\beta=.16$), 또 의사결정 참여에서는 여가생활 의사결정 참여($\beta=-.12$)가 영향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64%였다. 즉 부부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내적 통제성향이 강할수록, 관계지향성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직업이 없는 경우에, 부부단독가구 남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부부간 의사소통 개방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 내 여가생활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낮을수록 부부단독가구 남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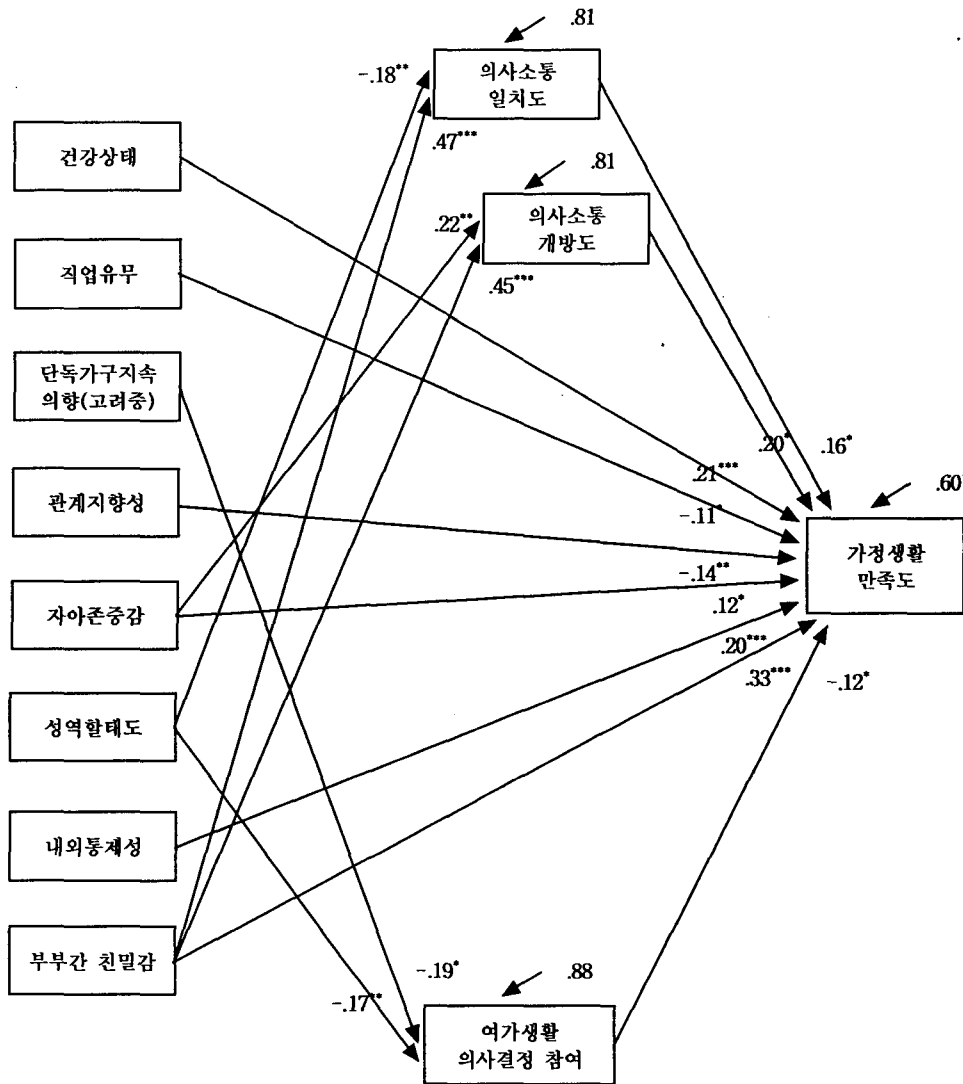
또한 부부단독가구 남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배경변인 중 단독가구 지속 의향,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부부간 친밀감으로 나타났다. 단독가구 지속 의향은 여가생활 의사결정 참여를 경유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직접효과는 물론 의사소통 개방도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는 부부간 의사소통 일치도, 그리고 여가생활 의사결정 참여를 매개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친밀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직접효과는 물론 의사소통 일치도와 의사소통 개방도를 경유하는 간접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남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의사소통		의사결정 참여		가정생활 만족도	
				일치도		여가생활			
		b	β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건강상태	-	-	-	-	-	-	.09	.21***
	직업유무	-	-	-	-	-	-	-.10	-.11*
	단독가구지속의향(고려중)	-	-	-	-	-.30	-.19*	-	-
심리적 변인	관계지향성	-	-	-	-	-	-	-.14	-.14**
	자아존중감	-	-	.24	.22**	-	-	.10	.12*
	성역할태도	-.16	-.18**	-	-	-.09	-.17*	-	-
	내외통제성	-	-	-	-	-	-	.18	.20***
	부부간 친밀감	.56	.47***	.51	.45***	-	-	.28	.33***
의사소통	일치도					-	-	.12	.16*
	개방도					-	-	.15	.20*
의사결정 참여	여가생활							-.14	-.12*
상수		1.13		1.19		1.59		.80	
R ²		.35		.35		.23		.64	
F-value		6.03***		6.04***		2.69***		12.54***	

*P<.05 **<.01 ***P<.001

*직업유무 : 기준집단(무) 비교집단(유)
 단독가구 지속 의향: 기준집단(아니다) 비교집단(그렇다, 고려중이다)



(그림 1) 남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표 5> 남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효과

독립변인	총체적 효과	인과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	전체인과 효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	건강상태	.391	.206	-	.206	.185
	직업유무	-.038	-.110	-	-.110	.072
	단독가구지속의향(고려중)	-.161	-	여가생활 의사결정 참여 경유 : -.311	-.311	.150
심리적 변인	관계지향성	.142	-.144	-	-.144	.286
	자아존중감	.415	.118	의사소통 개방도 경유 : .042	.160	.255
	성역할태도	-.149	-	의사소통 일치도 경유 : -.029 여가생활 의사결정 참여 경유 : -.290	-.319	.170
	내외통제성	.475	.199	-	.199	.276
	부부간 친밀감	.632	.334	의사소통 일치도 경유 : .076 의사소통 개방도 경유 : .088	.498	.134
의사소통	일치도	.565	.164	-	.164	.401
	개방도	.560	.199	-	.199	.361
의사결정 참여	여가생활	.188	-.124	-	-.124	.312

* 총체적 효과: pearson's correlation

한편 매개변인으로 의사소통 변인이 부부단독가구 남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일치도가 배경변인 중 성역할태도, 부부간 친밀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효과도 나타났다. 의사소통 개방도는 배경변인 중 자아존중감, 부부간 친밀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으로 의사결정 참여 변인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가생활 의사결정 참여가 배경변인 중 단독가구 지속 의향, 성역할태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2) 부부단독가구 여자노인의 배경변인·부부간 의사소통·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간의 인과관계

부부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2)와 같은 인과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배경변인이 부부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참여를 경유하여 종속변인인 가정생활만족도에 작용하는 인과효과는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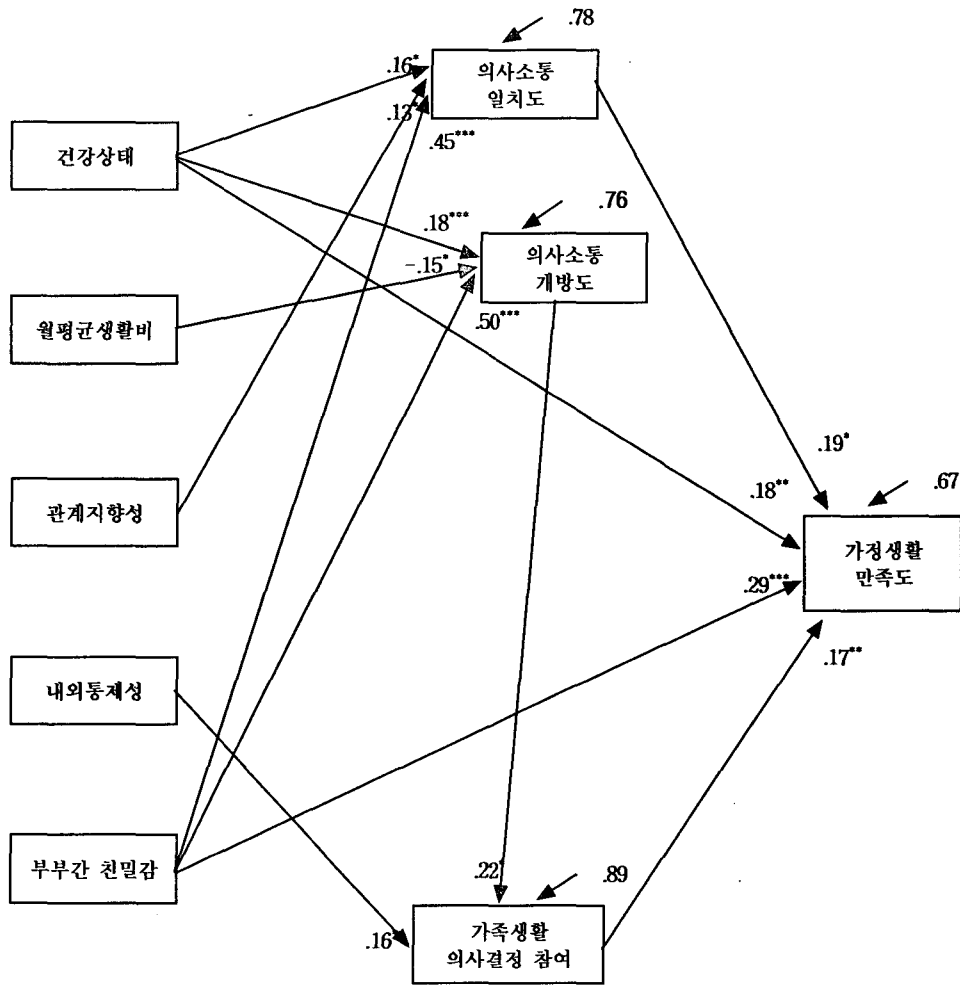
배경변인 중에서 건강상태, 월평균생활비, 관계지향성, 내외통제성, 부부간 친밀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인 중 부부간 의사소통에서는 의사소통 일치도와 개방도가, 또 의사결정 참여에서는 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부단독가구 여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배경변인 중 부부간 친밀감($\beta=.29$)과 건강상태($\beta=.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인 중 부부간 의사소통에서는 의사소통 일치도($\beta=.19$), 또 의사결정 참여에서는 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beta=.17$)가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55%였다. 즉 부부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생활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높을수록 부부단독가구 여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 여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의사소통				의사결정 참여		가정생활 만족도	
		일치도		개방도		가족생활			
		b	β	b	β	b	β	b	β
독립변인	건강상태	.10	.16*	.13	.18**	-	-	.09	.18**
	월평균생활비	-	-	-.00	-.15*	-	-	-	-
심리적 변인	관계지향성	.15	.13*	-	-	-	-	-	-
	내외통제성	-	-	-	-	.15	.16*	-	-
	부부간 친밀감	.47	.45***	.58	.50***	-	-	.24	.29***
의사소통	일치도	/		/		-	-	.15	.19*
	개방도					.15	.22*	-	-
의사결정 참여	가족생활	/		/		/		.18	.17**
상수	/							/	
R ²	/		/		/		/		.55
F-value	/		/		/		/		9.78***

*P<.05 **<.01 ***P<.001



(그림 2) 여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표 7> 여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효과

독립변인		총체적 효과	인과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	전체 인과효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	건강상태	.347	.180	의사소통 일치도 경유: .030 의사소통 개방도×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 경유: .006	.216	.131
	월평균생활비	.035	-	의사소통 개방도×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 경유: -.005	-.005	.040
심리적 변인	관계지향성	.174	-	의사소통 일치도 경유: .023	.023	.151
	내외통제성	.301	-	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 경유: .027	.027	.274
	부부간친밀감	.578	.293	의사소통 일치도 경유: .084 의사소통 개방도×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 경유: .018	.395	.183
의사 소통	일치도	.534	.188	-	.188	.346
	개방도	.537	-	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 경유: .037	.037	.500
의사결정 참여	가족생활	.295	.172	-	.172	.123

* 총체적 효과: pearson's correlation

또한 부부단독가구 여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배경변인 중 건강상태, 월평균생활비, 관계지향성, 내외통제성, 부부간 친밀감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일치도를 매개로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의사소통 개방도를 경유한 후 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를 경유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효과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생활비는 의사소통 개방도를 경유한 후 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를 경유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관계지향성은 의사소통 일치도를 경유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내외통제성은 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를 경유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친밀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직접효과는 물론, 의사소통 일치도를 경유하여, 그리고 의사소통 개방도를 경유한 후 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를 경유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개변인으로 부부간 의사소통 변인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일치도가 배경변인 중 건강상태, 관계지향성, 부부간 친밀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효과도 나타났다. 의사소통 개방도는 배경변인 중 건강상태, 월평균생활비, 부부간 친밀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를 경유하면서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으로 의사결정 참여 변인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가 배경변인 중 내외통제성, 그리고 의사소통효율성 변인 중 의사소통 개방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경로모형 도출 결과,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전체 인과효과를 비교하여 설명하면, 배경변인 중 건강상태, 내외통제성, 부부간 친밀감이, 매개변인 중 부부간 의사소통변인에서 의사소통 일치도가 부부단독가구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한 노인일수록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매사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생활에도 만족하게 됨(김경애, 1998)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적통제성향이 강한 개인은 가치 있는 산출을 위하여 상황을 조절할 줄 알며(현은민, 1994), 높은 성취욕구를 지니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할 수 있는데(이명숙 등, 2003), 내적통제성향이 강한 노인 역시 높은 성취욕구를 바탕으로 상황을 조절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부부간 친밀감은 전체 인과효과가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나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 증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노년기의 만족

스러운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부부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고, 내적통제성향을 고취시켜야 하며, 부부간의 친밀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부부간 의사소통 일치도가 공통의 매개변인으로 나타나, 노부부간에는 부부 두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의 일치가 더욱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노부부간 의사소통이 상호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는 것이다.

한편 부부단독가구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전체 인과효과에서 차이를 나타낸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부단독가구 남자노인은 배경변인 중 직업유무, 단독가구 지속 의향,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관계지향성이, 그리고 여자노인은 배경변인 중 월평균생활비와 관계지향성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개변인 중 부부간 의사소통에서는 남녀노인 모두 의사소통 개방도가, 그리고 의사결정 참여에서는 남자노인의 경우 여가생활 의사결정 참여, 여자노인의 경우 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남녀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들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남녀노인 모두 관계지향성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자노인은 관계지향성이 낮을수록, 이에 반해 여자노인은 관계지향성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향 배경변인 및 그 인과효과에서 남녀별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가정생활에서 남녀노인의 관심과 비중 영역이 각기 다름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남자노인은 주로 개인적 측면에, 여자노인은 주로 관계적·가정적 측면에 관심을 두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는 곧 남녀노인이 가정생활에 있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환경(사회인구학적·심리적)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남녀(부부)차이를 노부부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남녀별로 차별화된 세밀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매개변인 중 부부간 의사소통에서 의사소통 개방도가 남녀노인 모두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노인은 여가생활 의사결정 참여를 경유하지 않고, 그리고 여자노인은 가족생활 의사결정 참여를 경유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남자노인은 여자노인에 비해 부부간에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지 않고 혼자 여가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정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자노인은 부부간

에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며 솔직하게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가족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남편과 함께 할 때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개변인 중 의사결정 참여에서 남자노인은 여가생활 의사결정 공동참여 정도가 낮을수록, 여자노인은 가족생활 의사결정 공동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남녀역할관이 노년기 부부의 여가생활 의사결정에도 반영되는 일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남자노인이 여가활동에의 참여의사가 더 높고, 사교 및 오락활동, 발전적 활동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반면, 여자노인은 가정지향 활동, 종교 활동 등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성연·박미석, 2000; 김태현, 1994; 장인협·최성재, 1987; 정미자, 1997; 홍성희·송정선, 1996). 이를 볼 때 전통적인 노인세대의 경우 부부의 여가생활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남자노인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남자노인 자신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내릴수록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여자노인은 가사일과 관련된 일에 대해 주로 권한을 갖지만, 실제적인 최종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남편의 의견을 따르려는 여필종부(女必從夫) 등의 유교적 사고방식 때문에 가족생활에 관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남편과 함께 결정하여 내려진 결과를 따를 때 더욱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은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남녀노인 모두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다. 즉 노년기로 갈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저조하며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적고, 남녀차로 인하여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선행연구들의 지적과는 달리 부부단독가구 남녀노인 모두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비교적 원활한 편이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개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에서의 남녀(부부) 차이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 등의 교육현장에서 성차에 따른 남녀교육을 지양하고, 개인의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며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사소통 교육은 지속적인 훈련이 중요하므로 평생교육 측면에서 폭넓은 부부 대상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확충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부단독가구 노인은 가정 내 의사결정을 비교적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가생활, 가족생활, 재정생활에 관련한 의사결정에는 부부의 공동참여가 높은 반면 의생활과 식·주생활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에의 공동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노인세대의 경우, 의·식·주생활 등의 가사영역은 여성(아내)의 담당영역으로 생각하여 주로 아내가 책임을 떠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도 부부간의 협의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가정생활의 운영 주체가 되는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특히 가정 내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가정경영에 대한 관심, 권리와 의무, 책임을 공유할 때 더욱 주도적으로 효율적인 가정경영을 할 수 있음을 각 사회교육기관과 매스컴 등을 통해 인식시키고 적극 홍보, 교육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부단독가구 노인은 대체로 자신의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가정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부부관계에서는 아직까지 남편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져 집안살림 혹은 남편의 시중을 아내가 거의 도맡게 됨으로써 아내의 부담감이 큰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노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해 온 가정생활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부부가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관계의 재조정을 시도함으로써 좀더 만족스러운 노후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매체에서는 동등하고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부부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여 노부부의 자발적인 인식의 전환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이와 함께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도 노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용화함으로써 노부부가 가치관의 차이를 줄이고 부부관계를 개선하여 가정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참여는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남녀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참여 변인 및 그 효과가 각기 다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부부단독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부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부부 공동 의사결정이 만족스러운 가정생활 영위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에서 노부부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서의 부부(남녀)차이가 완화 또는 극복될 때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은 더 원활해지고 의사결정 공동참여도 증가하게 되어 가정생활에서의 만족감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원활한 부부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참여를 기반으로 노후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부부간 의사소

통과 의사결정 참여에서의 부부(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셋째, 부부단독가구 노인이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가정 내 의사결정에서의 부부 공동참여가 많으며, 이와 함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의무와 책임감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던 전통적 사회와 달리 부부관계가 중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친밀한 부부관계는 노부부관계 증진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단독가구 노부부는 과거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는 가부장적 부부관계를 허물고 평등한 동반자적·우애적 부부관계로 새롭게 부부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년기 교육 과정에서 바람직한 노부부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또 이를 실제 가정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적극적인 연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육적 방안과 실행간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삶은 원활하고 유연한 상호작용을 통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이 충족될 때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된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특성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차원적이고 실효성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정책을 사회 정부 차원에서 모색하여 부부단독가구의 노부부가 길어진 노후 가정생활을 더욱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또 선진국에 비해 노인 인구 증가속도가 매우 급속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노인 복지 측면에서 위의 특성들을 반영한 노인 교육이나 노부부 가정생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생활교육은 노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쉽게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공공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지원하여 노인 복지의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단독가구의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일방적 응답을 토대로 부부간의 상호작용(의사소통, 의사결정 참여)을 파악하였는데, 부부간의 상호작용은 일방이 아닌 쌍방의 작용 과정이므로 앞으로는 노부부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부부를 쌍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주부 또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가족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부부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산출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척도의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단독가구 노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현재 자녀세대의 교육, 직장 등의 이유로 지방 도시나 농촌지역에 노부부 단독가구가 상당수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방도시나 농촌지역은 대도시의 환경 조건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지방도시나 농촌지역 부부단독가구 노부부의 상호작용과 가정생활만족도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단독가구 노부부의 그것과는 상이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 또는 지역 간 비교를 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더 일반적인 결과를 토대로 부부단독가구 노부부 및 노인 연구분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접수일 : 2005년 05월 13일

□ 심사일 : 2005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5월 23일

【참 고 문 헌】

- 김경신·이선미(2003).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1(1), 139-153.
- 김선우(2002).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도.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영나(2001).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김동배·최선희(1998). 노인부부의 스트레스와 갈등, 우울증, 그리고 권력. **한국노년학**, 18(3), 103-122.
- 모선희(1991). 가족내에서 노인의 의사결정권. **한국노년학**, 11(1), 50-60.
- 박광희·한혜경(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 11, 43-61.
- 박지은(2001). 노인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송주은·문숙재(1993).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3-217.
- 이정우·박은아(2003).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25-44.
- 이행옥(2000).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과 중재방안. **원주대학 학술논집**, 32, 17-29.
- 정혜정·이동숙(2000). 부부단독가구 노인과 자녀동거 가구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 변인 연구: 전북지역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67-91.
- 지금수·김현지(1999).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과 생활적용 관련 변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2), 61-76.

- Adelmann, P. K.(1994).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dult. *Journal of Gerontology*, 49(6), S277-S285.
- Allen, K. R., Bliessner, R. & Roberto, K.(2000). Families in the middle and later years: A review and critique of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11-926.
- Allen, S. M., Goldscheider, F. & Ciambone, D. A.(1999). Gender roles, marital intimacy, and nomination of spouse as primary caregiver. *The Gerontologist*, 39(2), 150-158.
- Aquilino, W. S.(1991). Predicting parents' experiences with coresident adult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2(3), 323-342.
- Broucke, S. V., Vertommen, H. & Vandereycken, W.(1995).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marital intimacy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4, 285-290.
- Chipperfield, J. G. & Havens, B.(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tatus transitions and life satisfaction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56(B), 176-186.
- Day, A. T. & Day, L. H.(1993). Living arrangements and successful ageing among ever-married american white women 77-87 years of age. *Ageing and Society*, 13(3), 365-387.
- DeMaris, A. & Longmore, M. A.(1996). Ideology, power, and equity: Testing competing explanations for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4(3), 1043-1071.
- Dorfman, L. T. & Heckert, D. A.(1988). Egalitarianism in retired rural couples : household tasks, decision-making, and leisure activities. *Family Relations*, 37(1), 73-78.
- _____, & Hill, E. A.(1986). Rural housewives and retirement: joint decision-making matters. *Family Relations*, 35, 507-514.
- Halloran, E. C.(1998). The role of marital power in depression and marital distres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1), 3-14.
- Krause, N.(1991). Stressful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46, S84-92.
- Kulik, L.(1999). Marital power relations, resources and gender role ideology: A multivariate model for assessing effec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0(2), 189-207.
- _____(2002). Equality in marriage, marit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preretired and retired men and women in Israel. *Families in Society*, 83(2), 197-207.
- Lindahl, K. M. & Malik, N. M.(1999). Observa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power: relations with parenting in the Tria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 320-331.
- Martin, P. & Silvia, S.(2001).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 age: A meta-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56(B), 195-213.
- Pratt, C. C., Jones, L. L., Shin H. Y. & Walker, A. J.(1989). Autonomy and decision making between single older women and their caregiving daughters. *The Gerontologist*, 29(6), 792-797.
- Richmond, V. P., McCroskey, J. C. & Roach, K. D.(1997).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styles, power base usage, and satisfaction in marital dyads, *Communication Quarterly*, 45(4), 410-426.
- Shek, D. T. L.(1999). Marital quality and health of Chinese couple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nder, Culture, and Health*, 4(2), 83-96.
- Suitor, J. J.(1991). Marital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21-230.
- Tower, R. B. & Kasl, S. V.(1996). Gender, marital close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couples. *Journal of Gerontology*, 51(B), 115-129.
- Ward, R. A.(1993). Marital happiness and household equity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2), 427-439.

<부록 1>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COMMUNALITY
25. 우리 부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74	.17	.10	.59
24. 우리 부부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해 준다.	.67	.24	.10	.52
23. 우리 부부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62	.31	.26	.55
22. 우리 부부는 거의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한다.	.62	.20	.42	.60
21. 우리 부부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61	.20	.41	.59
20. 우리 부부는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을 먼저 들어준다.	.61	.25	.16	.46
19. 우리 부부는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60	.33	.20	.50
18. 우리 부부는 비밀스런 일은 누구보다도 먼저 배우자에게 털어놓는다.	.51	.38	.27	.47
17. 우리 부부는 하루 일과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50	.23	.38	.45
16. 우리 부부는 각자의 생각을 망설임 없이 이야기한다.	.50	.37	.22	.44
15. 우리 부부는 취미나 여가생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27	.69	.06	.56
14. 우리 부부는 재정 문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18	.65	.28	.53
13. 우리 부부는 친척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26	.64	.10	.48
12. 우리 부부는 의·식·주 생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22	.62	.33	.53
11. 우리 부부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38	.60	.26	.56
10. 우리 부부는 자녀나 손자녀 문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14	.58	.41	.52
9. 우리 부부는 부부생활(애정, 건강, 성 등)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41	.58	.14	.52
8. 우리 부부는 가족행사나 모임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28	.53	.36	.49
7. 우리 부부는 재정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20	.19	.71	.57
6. 우리 부부는 자녀나 손자녀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13	.16	.70	.54
5. 우리 부부는 가족행사나 모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10	.29	.69	.57
4. 우리 부부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42	.10	.64	.59
3. 우리 부부는 의·식·주 생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29	.15	.63	.50
2. 우리 부부는 친척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16	.37	.54	.45
1. 우리 부부는 부부생활(애정, 건강, 성 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40	.17	.45	.39
Eigen Value	10.22	1.50	1.26	51.88
% of Var	40.87	5.99	5.02	

요인1: 의사소통 개방도, 요인2: 의사소통 일치도, 요인3: 의사소통 정도

<부록 2> 의사결정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COM MUN ALITY
1. 부부의 외출시 부인의 의복선택은	.83	.18	.07	-.01	-.00	.73
2. 부부의 외출시 남편의 의복선택은	.75	.10	.08	.05	.13	.60
3. 부인의 의복 구입시 색상, 디자인 등은	.75	.25	.06	-.01	-.00	.63
4. 남편의 의복 구입 시 색상, 디자인 등은	.69	.04	.14	.13	.13	.53
5. 실내장식(도배, 커튼, 가구,장식품 배치 등)에 관련된 사항은	.16	.73	.07	.03	.08	.58
6. 식품 구입시 종류, 시기, 장소 등은	.23	.66	.13	.00	-.09	.51
7. 부부가 외식 할 경우 식사장소나 음식 종류는	-.06	.64	.07	.19	.07	.46
8. 평소 식사 준비시 식단은	.15	.58	.30	-.06	-.09	.46
9. 주택관리(보수, 수리 등)의 방법이나 시기는	.04	.55	.09	.16	.21	.39
10. 청소에 관련된 사항(시기, 방법, 횟수 등)은	.41	.54	-.02	.09	.01	.47
11.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02	.17	.76	.04	.20	.65
12. 주요재산(집, 땅 등)을 매매하는 경우는	-.03	.18	.72	.06	.16	.58
13. 장·단기 저축방법(적금, 정기예금, 보험 등)에 관하여는	.29	.20	.59	.26	.00	.54
14. 한달 생활비의 지출 방법이나 내용에 관하여는	.40	-.02	.59	.02	-.03	.50
15. 집안. 친척 모임을 가질 경우 날짜, 장소, 방법, 내용 등은	.15	.06	.06	.77	.13	.64
16. 가족행사를 할 경우 그 방법이나 내용은	.07	.06	.06	.73	.20	.59
17. 자녀들과의 상호관계와 관련된 일(방문 시기, 횟수 등)은	-.07	.10	.10	.65	-.04	.46
18. 부부의 휴가나 여행시 시기, 장소 등은	.04	.17	.17	.09	.75	.61
19.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활동 종류는	.00	.11	.11	.22	.71	.57
20. 부부의 문화활동(신문구독, TV프로 선정 등)에 관한 선택은	.28	-.01	-.01	.29	.55	.46
Eigen Value	4.73	2.03	1.68	1.43	1.08	54.68
% of Var	23.64	10.14	8.38	7.13	5.38	

요인1: 의생활, 요인2: 식·주생활, 요인3: 재정생활, 요인4: 가족생활, 요인5: 여가생활